



# e-환경과조경, 2020년 '과학/환경뉴스' 분야 사이트 이용량 1위

##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경기도 이천 산수유군락지·연천 임진강 일원·가평 백둔천 일원 등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1-04-12 21:12    수정 2021-04-12 21:12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1일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지 육성을 지향한다.

선정된 3곳에는 올해 각각 1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 탐방시설 확충, 체험 상품 기획·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자원조사,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이천시는 '나와 함께 크는 숲'이라는 제목으로 500여년 된 마을 숲에서 산수유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숲속 쉼터, 걷기 쉬운 숲길 등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자원과 DMZ·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조류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곶리 마을 주민과 두루미 마을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평군은 향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래킹'을 주제로 계곡 방문객을 위한 자연체험·편의시설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계곡 모니터링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부터 2020년까지 총 6곳의 거점을 조성했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정돼,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생태관광거점 9곳에 대한 통합 정보는 연내 '경기관광포털' 등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 될 예정이다.

추천해요! (0)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댓글 (0)

이름	비밀번호	해당 댓글을 수정/삭제 시 필요합니다.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댓글달기
최근순	추천순	

[이전페이지](#)   [목록으로](#)   [맨위로](#)